

〈지장본풀이〉에 담긴 수수께끼와 연행방식 고찰

- 지장과 새의 의미, 연행방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

한진오*

<차례>

- I. 지장본풀이에 관한 몇 가지 물음
- II. 지장본풀이의 짜임새
 - 1. 이야기의 짜임새
 - 1) 지장본풀이의 내용
 - 2) 비슷한 자료의 검토
 - 2. 지장본풀이의 수수께끼
- III. 의례 및 제차와의 상관성
- IV. 연행방식의 특징
- V. 논의의 종합

국문요약

지장본풀이는 신의 내력담을 노래하는 제주도의 무가 중 하나로 지장아기씨라는 여인의 비극적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본풀이는 주로 죽은 조상의 영혼을 친도하는 시왕맛이에서 불려진다. 제주도곳에서 불리는 여느 본풀이들이 심방 한 사람에 의해 리듬과 멜로디를 자유롭게 운용하며 말과 노래를 병행하는 독창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규칙적인 틀을 가진 노래로 불리며 심방의 노래를 악사들이 그대로 반복하는 가창방식을 보여준다. 이같은 점에서 지장본풀이는 다른 지방의 만세받이, 바라지창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상호 간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리라 여겨진다.

지장본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지장이 죽은 뒤 새로 환생했다는 부분이다. 이 새는 제주도곳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왕맞이에서 내쫓김을 당하는데, 이글에서는 과연 이 부정한 새가 지장의 화신인가 하는 점과, 부정한 것이라고 해 무조건 내쫓김을 당하는가 하는 두 가지 의문이다. 최근까지 전개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새는 지장의 화신이며 부정한 것으로 여겨 내쫓는 대상으로 성격을 파악해왔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2008년에 채록된 두 편의 새로운 자료에 근거해 지장과 새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다.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지장은 사후(死後)에 새로 환생한 것이 아니라 돌부처로 환생해 서천꽃밭에 좌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돌부처에게 날아들어 해코지를 하는 새를 내쫓아내자는 것이 지장본풀이가 의례의 전후맥락에서 지니는 의미인 셈이다.

이글에서는 최근의 채록자료에 근거해 지장과 새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과 더불어 지장본풀이가 지닌 연행방식의 특징을 비교적 후대의 산물로 바라본다. 그를 위해 다른 지방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내용과 형식이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 가창방식, 본풀이, 새풀이, 세경본풀이, 시왕맞이, 신화, 연행방식, 의례, 지장본풀이

I. 지장본풀이에 관한 몇 가지 물음

지장본풀이는 비련의 주인공 지장아기씨의 생애담과 사후 변신담으로 구성된 율격과 음조가 정연한 노래다. 곳에 대한 짧은 견문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글쓴이의 경험으로는 제주도의 무가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본풀이는 영웅적 신인(神人)의 고난과 역경을 그리며 최종적으로는 위풍당당한 신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때문에 의례 속에서도 대부분의 신들은 ‘차례차례

재차례'로 고향에 모셔지며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지장아기씨는 어떠한가? 이야기 속에서도 회한이 서린 삶만 살다갔지만 죽어서도 구축(驅逐)의 대상이 되어 내쳐지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울어 사라져가는 그믐달 같은 존재이니 이 노래를 듣다보면 슬픈 사연과 달리 역설적이게도 감미로운 선율로 인해 듣는 이의 가슴은 미어지다시피 한다.

신들의 내력을 담은 이야기인 본풀이는 오로지 고향에서만 연행된다. 그것은 음악적인 선율을 동반한 노래형식으로 불리며, 가창방식 또한 3소박2박자 또는 3소박4박자의 패턴을 기반으로 구연자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몇 박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자유리듬조로 부르는 본풀이가 있는가 하면 정격의 패턴을 유지하는 본풀이도 있다. 대부분의 본풀이들은 자유리듬을 구사하는 전자에 해당되고, 이글에서 다루게 될 지장본풀이는 서우계소리로 대표되는 영감본풀이나 군웅덕담의 곡조를 빌린 군웅본풀이 등과 더불어 후자에 해당된다.

정격의 패턴을 지닌 본풀이들은 정연한 양식을 갖춘 노래로 불리기 때문에 율격과 음조가 정연하고, 노래가 지닌 특성 상 고도의 서정성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지장본풀이와 관련한 논의는 그 자체가 지닌 서사시적 의미, 의례의 한 부분이므로 다른 제차와의 관계, 연행방식의 특징 등을 두루 살펴야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장본풀이는 가창방식의 특이성만으로도 버거운 숙제를 떠안기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해명을 요구하는 수수께끼가 여럿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지장본풀이에 등장하는 '새'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며 곁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지장본풀이의 '지장'은 불교의 '지장보살'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처럼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들을 지장본풀이

에 내재된 신화적 의미와 연행방식의 특징을 통해 풀이하고자 한다.

II. 지장본풀이의 짜임새

1. 이야기의 짜임새

제주도 곳곳에서 지장본풀이는 주로 시왕맞이에서 불리며 당곳에서도 종종 불리는 노래다. 곳의 종합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보아야 지장본풀이의 기능과 의미 등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당곳보다는 사자집 곳의 시왕맞이가 제격이다. 시왕맞이에서 지장본풀이는 ‘나까시리놀림’에서 연행된다. 시왕맞이에서 펼쳐진 지장본풀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채록된 것은 총 9편이다.

〈표-1〉 지장본풀이 채록 자료¹⁾

심방	수록문헌	채록자	년도
고대중	한국의 민간신앙	장주근	1973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현용준	1980
서월선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진성기	1991
박남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진성기	1991
정태진	제주도무속신화	문무병	1997
김만보	제주도 무당굿놀이	현용준	1965
한생소	제주도 큰굿자료	문무병	2001
서순실	동북리 시왕맞이	강정식 외	2008
이용옥	제주도 열두 본풀이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2008

1)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연구』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105쪽을 토대로 최근 자료를 추가했다.

〈표-1〉의 자료 가운데 전체 줄거리가 가장 길고 구성 또한 치밀하게 짜여진 것은 김만보 본(本)과 안사인 본(本)으로 알려져 있다.²⁾ 이 때문에 선행연구자들은 대부분 안사인 본(本)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왔는데, 최근에 채록된 서순실 본(本)과 이용옥 본(本)은 그 후반부에 기존의 자료와는 비교적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중, 안사인, 박남하, 정태진, 김만보 본(本)의 자료들은 지장본풀이의 핵심적 화소인 지장의 사후 변신을 “새 몸에 나뉘고.”라고 서술하며 지장이 새(鳥)로 환생했다고 노래한다. 서월선, 한생소 본(本)에서는 이 같은 대목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자료인 이용옥 본(本)에서는 “통부채 몸으로 환생(還生)”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서두에서 제기한 수수께끼 중 하나인 새(鳥)의 정체를 파헤치는 중요한 단서로 안사인 본(本)과 더불어 살펴봐야 할 이유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사인 본(本)과 더불어 이용옥 본(本)을 비교하기로 한다.

1) 지장본풀이의 내용

〈안사인 본(本)〉³⁾

가. 지장아기씨의 출생과 성장

남산과 여산 부부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 범당에 원불수룩해 지장아기씨를 얻는다. 세 살까지 부모와 조부모 슬하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잘 자라다 네 살 때부터 줄초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네 살 때 조부모가 죽고, 다섯 살 때 아버지, 여섯 살 때 어머니가 차례로 죽는다. 그리하여 사고무친이 된 지장은 외삼촌의 수양딸로 간다. 그 뒤 열다섯이 되기까지 외삼촌의 극심

2) 같은 이, 위의 글, 108쪽.

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39~249쪽 요약.

한 구박을 당하면서도 지장은 옥황의 부영새의 보살핌 아래 곱게 성장한다.

나. 결혼과 시집살이

열다섯이 된 지장은 서수왕 문수의 아들과 결혼하고 시댁의 귀여움을 받으며 많은 전답과 마소를 물려받는다. 그러나 다시 이듬해부터 시조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한해에 한 사람씩 차례로 죽는다. 급기야 시누이들의 원망과 구박을 받아 시집에서 내쳐진다.

다. 예언에 따른 일과 곳

시집에서 쫓겨난 지장은 주천강 연화못에서 우연히 만난 대사에게 자신의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와 친가와 시댁의 죽은 이들을 위한 새남굿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지장은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고, 그것으로 굿에 필요한 천(신드리, 대제김 끈, 소제김 끈, 멥두 끈, 아강베포 따위에 쓰이는 천)을 만든다. 그리고는 스님처럼 삭발한 뒤 탁발을 해 쌀을 모아다 뺑는다. 이렇게 굿을 준비한 뒤 전새남과 후새남의 새남굿을 한다.

라. 죽음과 변신

새남굿을 한 뒤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한 지장은 정명이 다해 죽는 순간 머리에서는 두통새, 눈으로 흘그새, 입에서는 헤말림, 가슴에선 이열새, 오금에서는 조각새 등이 생겨나며 새의 몸으로 변신한다. 그리하여 이 새들은 사람들의 몸에 접신해 재앙과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신이 되었다. 때문에 굿할 때에는 지장의 원혼을 달래는 한편 내쫓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안사인 본(本)은 지장의 출생담에서 사후담까지 이어지는 인생역정과 지장의 녀을 달래고 구축(驅逐)하는 굿을 마련하게 된 경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안사인 본(本)과 달리 지장아기씨가 사후에 새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부체’로 환생한다고 하는 이용옥 본(本)을 살펴보자.

〈이용옥 본(本)〉⁴⁾

가-1. 지장아기씨의 출생과 성장

서천 서역국에 사는 남산국과 여산국의 딸 지장은 성정이 착하기로 동서에 소문이 자자해 열다섯 살이 되어 혼기가 차차 서수왕 편에서 중신이 들어온다.

나-1. 결혼과 시집살이

혼례를 올리고 신랑을 따라 서수왕 댁으로 가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니 착한 며느리를 기특히 여긴 시부모로부터 유기전답과 마소 등의 세간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삼년이 지난 열여덟 나는 해에 시부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시모, 남편이 차례로 죽는다. 이로 인해 시누이들의 미움을 사 집에서 쫓겨난다.

다-1. 예언에 따른 일과 곳

서천강 연못에서 대사와 만난 지장은 자신의 운명과 시택의 고향을 위한 새남굿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후 뽕나무를 재배해 누에를 치고, 새남굿에 필요한 직물을 마련한 뒤, 스님의 행색을 한 채 탁발을 해 제미(祭米)를 얻어다 뽕아 밥과 떡을 만들어 새남굿을 한다.

라-1. 죽음과 변신

새남굿을 치른 뒤 정명이 다하는 날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어 저승에 당도하니 생전에 선업(善業)을 많이 행했다는 이유로 서천 꽃밭에 통부체(돌부처)로 환생시켜준다. 그리하여 서천 꽃밭에 좌정하자 온갖 부정한 새들이 하루가 멀다고 날아드니, 지장에게 범접하는 이 새들을 내쫓자는 말로 마무리된다.

위의 두 본풀이는 모든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전개되다가 결말부인

4)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8, 216~227쪽.

‘라’와 ‘라-1’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장이 새로 환생했기 때문에 새를 드린다는 논리가 이용옥 본(本)에서는 관철되지 않는다.

한편 서순실 본(本)에서는 지장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새남굿을 통해 남편과 아들이 돌부처로 환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서순실 본(本)〉⁵⁾

가-2. 지장아기씨의 출생과 성장

남산과 여산 부부 슬하에 자식이 없어 동계남 상저절에 기원해 태어난 지장은 다섯 살까지 가족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난다. 그러나 여섯 살이 되던 해에 조부모와 부모를 한꺼번에 여윈다. 하여 외삼촌댁에 의탁해 살면서 갖은 구박을 당하던 중 서천강 연못에서 대사를 만나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된다.

나-2. 결혼과 시집살이

열다섯 살이 되어 혼기가 차자 서수왕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고 시부모의 사랑 속에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아들까지 낳는다. 그러나 아들이 두 살이 되던 해에 시부모, 남편, 아들이 죽는다. 결국 이로 인해 시누이들의 미움을 사 집에서 쫓겨난다.

다-2. 예언에 따른 일과 굿

다시 서천강 연못에서 대사와 상봉한 지장은 새남굿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고, 직물을 준비하고 새남굿을 한다.

5)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대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400~405쪽.

라-2. 남편과 아들의 환생

‘초새남, 이새남, 삼새남 새남굿’을 하니 남편과 아들이 ‘통푼체(돌부처)’로 환생한다. 돌부처에 범접하는 새를 내쫓지는 말로 마무리된다.

서순실 본(本)을 앞선 두 자료와 비교했을 때 ‘나-2’에서 시부모와 남편, 자식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점과 대사(大師)를 ‘다-2’와 ‘라-2’에서 두 번 상봉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라-2’에서 남편과 아들이 돌부처로 환생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남편과 아들의 환생인데, 이용옥 본(本)에서 지장이 돌부처로 환생한 것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장이 새로 환생한다는 안사인 본(本)과 달리 지장 또는 가족이 돌부처로 환생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결국 환생한 돌부처에 해코지를 하는 새를 내쫓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두 본풀이는 지장본풀이가 의례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풀어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의 성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뜯어보기로 한다.

2) 비슷한 자료의 검토

일가의 연속적인 죽음을 겪어야하는 지장의 드라마틱한 인생역정은 그야말로 독특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노동요와 서사민요, 서사무가 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제주도의 ‘뚝뚝불미소리’, 경북지역의 시집살이 노래, 동해안 무속의 ‘과부타령’ 등이다. 지장본풀이와 유사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축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뚝뚝불미소리〉⁶⁾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후렴)

불미나 불영 담배 먹자(후렴)
 혼 살적이 어멍 죽고(후렴)
 두 살적에는 할마님 죽어서(후렴)
 다섯 살적에는 할아버님 죽어놓고(후렴)
 열다섯 살 나는 해는(후렴)
 경상도 대불미를(후렴)
 걸머지고 나갑니다.(후렴)
 모리 처낙은 할아버님(후렴)
 제시는 돌아오고(후렴)
 앞집에강 불미불영(후렴)
 곤쌀 혼 돼 빌어다네(후렴)
 안방에다 두었더니(후렴)
 고냉이놈 쟁이놈이(후렴)
 오꼴하게 먹어불고(후렴)
 요만하면 어멍호료(후렴)
 제시는 근당호지(후렴)
 췌 혼 봉을 산 땡기단(후렴)
 췌 혼 자루 싸고 그날 처낙 앉아서난(후렴)
 할마님이 고기쫄을 내어준다(후렴)
 돼지 호나 내어준다(후렴)
 그제시를 잘 지내연보난(후렴)
 천년만년 잘 살앗덴 흡디다(후렴)

〈경북지역 시집살이노래〉⁷⁾

한 살 먹어 엄마 죽고 두 살 먹어 아바이 죽어
 세 살 먹어 할매 죽고 네 살 먹어 할배 죽어

6) 좌혜경, 『e-book 민요시학연구』, 한국문화도서관, 2007, 243~244.

7)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9, 264쪽을 김현선, 『앞의 글』 112에서 재인용.

다섯 살에 삼촌 우에 앉혔으니 서름 많고 팔세 많고 서름 많다
삼오 십오 열다섯에 시집이라 가였드니 가장조차 죽어지네

〈과부타령(신중타령)〉⁸⁾

- ①한살에 모친 잃고
- ②다섯 살에 부친 잃어
- ③고모, 이모, …등 친척의 집에서 구박받으며 살다가
- ④열다섯에 시집가니
- ⑤일곱 달 만에 남편이 죽어
- ⑥시집식구의 구박을 받다가
- ⑦집을 나와 중이 된다.

〈뚝딱불미소리〉는 안덕면 덕수리의 불미공예의 과정에서 전하는 것으로 1인용의 간소화된 풀무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경북지역 시집살이노래〉는 제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북지역의 시집살이노래로 자탄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부타령(신중타령)〉은 동해안 별신굿에 불리는 노래로 서대석의 견해에 따르면 6.25사변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기존의 중타령과 달리 신중타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위의 세 가지 사례와 지장본풀이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먼저 〈뚝딱불미소리〉와 지장본풀이의 관계에 대해 좌혜경은 무가인 지장본풀이가 대중화되며 뚝딱불미소리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짙막한 언급만을 남기며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를 밝

8) 최정여, 서대석, 『동해안무가』, 형설출판사, 1974, 401~406을 이수자,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祭儀의 기능과 意義』,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소, 1989, 13쪽에서 재인용.

하지 않았다.⁹⁾ 김현선 또한 <경북지역 시집살이노래>와 지장본풀이의 유사성을 찾아내었지만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¹⁰⁾

한편 이수자는 <경북지역 시집살이노래>와 <과부타령(신중타령)>을 지장본풀이에 전주면서 구비서사물이 신화, 전설, 민담의 순서로 발전한다는 그루피드(Gruffydd)의 학설에 근거해 지장본풀이가 원형이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견해를 제시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¹¹⁾

첫째, 지장본풀이는 고대의 희생제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교의 지장보살 또한 재래의 지장신앙에 가미되며 그 이름을 지장으로 남긴 것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재래의 지장신앙은 다른 이름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에 외래의 불교신앙과 만나는 과정에서 불교의 十王과 결합해 열한 번째 보살이 되었지만 죽음과 관련한 본래의 신성은 불교에 영향을 미쳐 지장보살이 내세복락과 명부를 관장하는 보살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둘째, 희생의례의 서사시로 존재하던 지장의 이야기가 널리 유포되는 과정에서 여성 공통의 시집살이와 관련한 신세타령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받는 여성상을 역설적으로 반영했다고 제시했다.

셋째, 지장본풀이는 민요 외에도 ‘변강쇠전’, ‘화전가’ 등의 고소설과 가사로 이어지며 많은 변화를 겪었고 최종적으로 상부살(喪夫殺)의 관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이수자의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글쓴이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다만 고대의 의례에서 비롯된 ‘지장 모티브’가

9) 좌혜경, 『앞의 책』, 243~244.

10) 김현선, 『앞의 글』, 112쪽.

11) 이수자, 『앞의 글』, 13~14쪽.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것에서부터 상부살(喪夫殺)이라는 풍자적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했다는 점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단한다.

2. 지장본풀이의 수수께끼

대개의 무속서사시들이 그런 것처럼 지장본풀이 또한 알갭게도 많은 수수께끼를 내며 끝치를 앓게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서 이수자의 견해에서 살펴본 ‘지장’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불교와의 관련성과 지장본풀이의 말미에 새로 변신한 지장과 새풀이의 새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새는 원천적으로 구축(驅逐)의 대상인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지장본풀이의 지장과 불교의 지장보살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수자의 경우는 재래의 지장신앙이 먼저 존재했고 외래의 지장보살 신앙이 덧씌워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현용준은 이에 대해 ‘지장’이라는 이름만 빌려온 것이지 지장보살신앙과 지장본풀이는 어떤 관련도 맺지 않는다고 단정했다.¹²⁾ 그는 완결된 서사시의 차원을 넘어서서 의례의 전후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면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시왕맞이의 제차 “초감제→방광침→차사본풀이→시왕 도올리고 석살림→액막이→나까시리놀림→지장본풀이→삼천군 병질침→질침→매어듬”¹³⁾ 까지의 과정을 제시하며 의례 속에서 지장본풀이가 담당하는 기능을 주목한 그는 불교의 지장보살은 승상의 대상이

12)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04쪽.

13) 현용준, 『위의 책』, 같은 쪽.

지만 시왕맞이에서의 지장은 구축(驅逐)의 대상이며 새드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위의 두 사람의 견해는 부분적으로 상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글쓴이의 생각은 이렇다. 제주도의 굿은 의례의 제차가 정연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물론 굿을 행하는 목적이나 현장의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축약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차례차례 재차례 굿’의 원칙은 심방집단에서 통용되는 원칙 중 하나다.

제주도 굿의 전말을 보여주는 큰굿¹⁴⁾의 수많은 제차들은 ‘맞이, 풀이, 놀이’라는 양식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본풀이의 구연은 풀이에 포함되며 풀이 속에는 본풀이뿐만 아니라 영계 올림, 분부사됨, 석살림 등도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풀이’는 맺힌 것을 푸는 ‘해원(解冤)’의 의미를 지니며 본풀이의 풀이는 신들의 사연을 읊는다는 ‘서술(敍述)’의 의미를 지닌다. 굿의 행위주체인 심방과 단골들은 ‘서술(敍述)’보다는 ‘해원(解冤)’에 큰 관심을 두며 해원 자체가 굿의 가장 큰 목적이 된다. 이렇게

14)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 1998, 63쪽에 의하면 제주도 무속의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큰굿’의 제차(祭次)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I. 청신의례 : 1) 초감제→ 2) 초신맞이→ 3) 초상계
- II. 공연의례 : 4) 추물공연→ 5) 석살림→ 6) 보세감상
- III. 기원·영신의례 : 7) 불도맞이→ 8) 일월맞이→ 9) 초공본풀이→ 10) 이공본풀이
→ 11) 초·이공맞이 → 12) 삼공본풀이→ 13) 쯤상계
- IV. 천도·해원의례 : 14) 시왕맞이→ 15) 요왕맞이→ 16) 세경본풀이→ 17) 제오상계
- V. 오신의례 : 18) 전상놀이(삼공맞이)→ 19) 세경놀이→ 20) 양궁숙임
- VI. 가신 조상의례 : 21) 문전본풀이→ 22) 본향드리→ 23) 영개돌려세움
- VII. 송신의례 : 24) 군웅만관→ 25) 칠성본풀이→ 26) 각도비님→ 27) 말놀이→ 28) 도진→ 29) 가수리→ 30) 뒤맞이.

보면 본풀이의 비중이 굿 속에서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맞이에서 놀이까지 이어지는 30여 가지의 크고 작은 제차들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차례차례 재차례 굿’이라는 강력한 원칙이 성립되는 것이다. 더욱이 본풀이는 그 특성 상 휴식 없이 길게는 몇 시간에 걸쳐서 구연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심방들은 내용전체를 암기해서 읊는다기보다 중요한 사건의 대목 대목을 숙지했다가 더러는 빼거나 더러는 붙여가며 구연한다. 이 때문에 본풀이는 다른 제차들에 비해 큰 탄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고정면보다 유동면이 많은 것이다.

물론 본풀이는 다른 제차와 달리 독자성과 완결성을 지닌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본풀이의 내적인 문제를 파악할 때는 이수자의 견해가 타당성을 지닌다. 분명히 ‘지장’이라는 이름은 ‘지장보살’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므로 불교신앙 또는 신화가 지장본풀이에 가미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풀이의 완결성에만 머무르다보면 마치 차사본풀이에서 새풀이로 이어지는 지장본풀이와 관련된 제차 전부를 지장보살신앙과 연결 짓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용준의 견해가 한 발 더 나아간 결론임을 알 수 있다. 탄력성을 지니는 본풀이가 불교와의 습합과정에서 지장보살신앙을 수용했으되 굿에서 구축되어야 할 대상인 본래의 성격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이수자의 견해는 본풀이가 지니는 완결성에 근거한 견해이고 현용준의 견해는 의례의 부속물인 본풀이의 부분성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견해는 명백히 다른 각도에서 ‘지장’의 의미에 다가간 것이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지장이라는 이름을 빌려 불교의 외피를 쓰고 있되 그 속은 구축의 대상인 본질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지장본

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수수께끼인 지장본풀이의 새와 새드림의 새가 지니는 함수관계를 살펴보자.

두 가지의 새는 혼동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굿에서 지장본풀이를 구연한 뒤에 새드림이 다시 불리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구연방식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지장본풀이가 대개의 본풀이와 달리 심방이 ‘금제비’(약사)들의 반주에 맞춰 부르는 것처럼 새드림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자와 선율이 정확히 일치하고 가사 또한 겹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새는 기원담이 정확히 다르다. 지장본풀이의 새는 지장아기씨가 변신한 것이지만 새드림의 새는 문왕성 문도령과의 혼인이 파기된 후 분에 사무쳐 죽은 서수왕 딸애기의 변신이다.

서수왕의 막편지 간 걸 혼연식을 물리레 갔더니 서수왕 따님아기 이열에 받헌 막편지 보비연 슬아네 물에 타 먹고 문 곳인 방안의 문잡아 누울 때, 석돌 열흘 백일이 돼연 누운 방문 올안 보난 서수왕 따님아기 새(鳥) 몸에 가옴데다. 머리로 두통새 눈으로 흘그새 코으론 악심새 입으론 헤말림새가 나옴데다.¹⁵⁾

위의 내용을 보면 서수왕 따님아기가 변신한 새나 지장아기씨가 변신한 새가 모두 “두통새, 흘그새, 악심새, 헤말림새” 등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이쯤 되면 혼동 정도가 아니라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판이다. 결국 지장본풀이의 새와 새드림의 새는 다른 신의 변신이 같은 새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95쪽.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두 가지 새의 기원이 다른 점은 확인되었지만 변신 이전의 주인공 두 사람은 악행을 일삼는 악신의 성격이 전혀 없는데도 부정한 것으로 축출 당하는 결과를 맞이했을까? 실패한 혼인을 비판해 자살한 서수왕 뜨님아기야 원한에 사무쳐서 부정한 새가 될 가능성이 있다지만 스스로 빛은 결과도 아닌 불행한 운명을 강요받아도 수궁하며 자칭해 중이 된 지장아기씨가 부정한 새로 변신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현용준은 새(鳥)와 새(邪)의 혼선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추정했다.¹⁶⁾ 그러나 鳥와 邪의 제주어 발음이 같은 데서 온 결과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이용옥 본(本)과 서순실 본(本)에 나타난 ‘통푼체(돌부처)’의 존재는 현용준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지장의 환생, 혹은 그의 가족들의 환생을 돌부처로 상징했을 때, 서천 꽃밭에 좌정한 돌부처에 부정을 끼치는 새는 그야말로 악하고 사된 것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중요한 사실은 그 새가 지장의 변신인가 하는 점이다. 안사인 본(本)을 염두에 현용준의 견해는 ‘지장=새’라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이용옥 본(本)과 서순실 본(本)에서는 그러한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새는 부정한 것이되, 지장의 변신은 아니라는 논리, ‘지장≠새’라는 등식 또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마지막 수수께끼인 새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새는 전적으로 부정한 새인가? 지금까지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현용준은 간명하게 구축(驅逐)의 대상이며 부정한 것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김현선의 견해는 숭배와 구축(驅逐)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닌다고 판단했다. 김현선은 ‘거룩한 새’와 ‘사악한 새’로 나누어 양면적 성격으로

16)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09쪽.

해명하는데 애초에 지장아기씨가 변신한 새는 ‘거룩한 새’였으나 후대로 전승되면서 새드림의 새와 뒤섞이며 ‘사악한 새’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¹⁷⁾ 물론 김현선의 논의는 이용옥 본(本)과 서순실 본(本)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새풀이에 등장하는 ‘서수왕 딱님아기’의 경우를 생각할 때 그녀 또한 생전에 악행을 한다거나 부정한 새로 환생할만한 행실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새의 성격은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새로 환생한 것이 확실시되는 서수왕 딱님아기의 화신은 김현선의 견해처럼 ‘거룩한 새’와 ‘부정한 새’의 양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비단 지장아기씨나 서수왕 딱님아기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곳곳에는 내쫓김을 당하는 신들이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인 내쫓김이 아니라 자기 몫의 대접, 즉 제향을 받은 뒤 물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신을 향한 기원의례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다. 신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대는 이타적인 심성보다 오히려 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무속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의례나 연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김수로왕 탄강신화인 구지가로부터 탈춤에서 양반과 말뚝이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은 절대자의 권능과는 다분히 거리가 있다. 부족한 권능, 혹은 결함은 인간과 신이 대등한 위치에 서로에게 요구하고 응답하는 곳의 양식까지 만들게 했다. 이런 점에서 지장본풀이의 새는 거룩한 송배와 더불어 부정의 소멸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17) 김현선, 『앞의 글』, 111~113쪽.

Ⅲ. 의례 및 제차와의 상관성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글쓴이가 시왕맞이의 전 과정을 직접 조사한 바가 없어서 제차와의 관계를 논의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 여러 곳의 당굿을 조사하면서 볼 수 있었던 지장본풀이의 연행상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글쓴이가 당굿을 조사하던 초기에는 사령굿이 아닌 곳에서 무슨 이유로 강남차사를 청하고 지장본풀이를 부르는지가 많은 의문 중의 하나였다. 많은 자료를 보고 심방들의 해설을 듣게 되면서 그 이유와 제차의 유래담을 알게 되었다.

먼저 당굿에서 강남차사를 청하는 이유는 대개의 당신(堂神)이 지닌 권능 중 하나가 단골들의 장적(葬籍)을 관리하는 일이다. 때문에 마을에 사망자가 생겼을 때 강남차사를 비롯한 삼차사가 저승에서 사망자의 집을 찾아올 때 마을 당신에게 인사드리고 안내를 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굿에서 체섯상을 따로 준비해 강남차사를 대접한다. 굿의 제차 중 지장본풀이 앞에 치러지는 ‘나까시리놀림’은 바로 강남차사를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심방들로부터 나까시리놀림의 유래담을 들을 수 있었는데 김헌선 또한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말복장제 떠넘애기가 아파서 심방이 굿을 하는 가운데 ‘오리정 신청께’를 하게 되었다. 여러 신인 시왕에게 ‘살려옵서’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강림체스에게는 ‘살려옵서’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강림체스가 홍사줄베를 신자리에 던지니까 그것 때문에 심방이 기절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미가 체스기를 올라에 세우고 ‘살려옵서’를 하자 심방이 다시 살아나고 심방이 강림체스에게 ‘석섬쫄 대독 반세미 금시리치역 올려서 체스상테레 올려 나

오는 법'으로 사자님의 시리역개를 들러 뵈어서 노렴을 한다. 나까시리의 청하늘, 청도전, 흑하늘, 흑도전 매여다가 상도전은 시왕사제에게 올리고 옆에 짓도던은 가고본당 모든 신전에 우올리고, 올리다가 남은 것은 생인 들도 각반본식으로 먹게 된다.¹⁸⁾

위의 이야기에 글쓴이가 조사하며 들었던 이야기를 보태면 위와 같은 이유로 나까시리를 놀린 뒤 '시리짐'을 치고 시루떡 가운데 구멍을 파서 인정 돈을 받는가 하면 나중에는 시루떡으로 잘게 나누어 단골들에게 나누어 준다. 딱딱하게 말라붙은 떡을 먹다보면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하게 된다. 이 때 심방이 나서서 '나 가심이 ㄱ웃ㄱ웃허고 목이 단단 줄라진 게 억울허고 칭원헌 지장이 아기씨 탓이로구나.'¹⁹⁾ 한 뒤 지장본풀이를 부르는 것이다. 마른 시루떡을 먹고 더부룩한 속사정이 지장의 원한 때문으로 치환되는 고도의 테크닉인 셈이다.

이상은 지장본풀이가 굿에서 치러지게 된 배경과 그것의 기능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굿을 하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그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굿의 속성에 근거해 살펴볼 때에는 어떤 양상들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생긴다.

지장아기씨의 호칭은 목적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도살아 지장', '천지장 만지장', '원살아지장', '신살아지장', '산지장', '신지장 만지장' 등이 그것이다.

도살아 지장은 말 그대로 되살아오는 지장을 말하는 것으로 굿을 청한 본주의 가계 중에서 '피쟁이' 조상이 있었던 경우에 부른다. 원살아 지장은 조상 중에 높은 관직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경우, 신살아 지장은

18) 김현선, 『앞의 글』, 117쪽.

19) 김윤수 심방 인터뷰, 2009년 5월14일 제주시내 상무정 식당.

스님 조상이 있을 경우에 행하는 각 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일반적인 사갓집 곳에서는 통상 ‘산지장’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모두 호칭 뒤에 본(本)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지장본풀이라고 해도 목적과 기능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가 직접 조사하거나 관람한 경험이 없어 구체적인 소개를 할 수 없으니 아쉬움이 짙어진다.

IV. 연행방식의 특징

지장본풀이는 영감본풀이, 군웅본풀이 등과 더불어 정격의 리듬과 멜로디를 갖춘 가창방식으로 연행된다. 대개의 본풀이들이 3소박 4박자의 리듬을 중심으로 2~3박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서사의 긴장관계와 호응하며 빨라지고 느려지기를 반복하는 것과 달리 정격의 리듬구조를 지키며 서서히 빨라진 뒤 마무리된다. 굳이 장단에 대입한다면 곳거리에서 자진곳거리로 고조된다고 할 수 있다.

지장본풀이의 연행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같은 음악적 특징은 지장본풀이 연행의 여러 방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가) 말미장귀에 의한 본풀이 구송
- (나) 요령을 흔들며 본풀이 구송
- (다) 심방은 서서 구연하고 장귀와 울복이 반주하는 본풀이 구송
- (라) 심방이 악기 없이 입으로 하는 본풀이 구송²⁰⁾

이 가운데 (가)의 방식은 대개의 본풀이들을 구송할 때 취하는 일반

20) 김현선, 『앞의 글』, 99쪽.

적인 방식인데, 지장본풀이는 위의 네 가지 방식 중 (다)의 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심방이 연물을 연주하는 악사를 마주보고 서서 노래하는 이 방식은 마치 판소리의 소리꾼과 고수의 연행방식과 흡사하다. 이와 관련해 김윤수(男巫, 1946年生)는 과거에는 서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칼치매를 너풀거리면서 걸어 다니는 춤을 동반했다고 한다.²¹⁾

이런 모습은 다른 지방의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북지방의 ‘오구 씨꿈굿’에 나타나는 ‘살대답’과 ‘바라지창’²²⁾을 비롯해 황해도지방의 ‘만세받이’²³⁾, 서울 경기 일대의 ‘만수받이’²⁴⁾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곳에서의 본풀이 가창방식 중 매우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는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은 제주만의 특유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지방 무속과의 교섭관계 속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악사의 장단의 맞춰 춤추며 노래하는 방식은 다른 본풀이의 구송이 심방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것과 달리 강한 규칙성을 지닌다. 그것은 이 본풀이의 연행에 사용되는 장단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21) 김윤수 심방 인터뷰, 2009년 5월14일 제주시내 상무정 식당.

김윤수는 이 밖에도 지장이 내쫓김의 대상인가 숭배의 대상인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지장아기씨나 새드림의 서수왕 딱뎀아기나 한이 땃혀 죽은 원령이므로 자손들의 대접을 받아 땃힌 한을 풀고 가는 길에 횡액을 모두 걸어가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22) 이영금, 『전북지역 ‘오구 씨꿈굿’의 공연방식』, 『한국무속학』 16집, 한국무속학회, 2008, 302쪽.

23) 홍태한, 『황해도곳의 무가』, 『한국무속학』 16집, 한국무속학회, 2008, 15쪽.

24) 신연우, 『서울 곳의 타령·만수받이·노랫가락의 관계』, 『한국무속학』 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272쪽.

〈표-2〉 지장본풀이 가창방식 (↓=70~80)

(선창-심방)

지	장	아	지	장	아	-	-	-	-	-	-
---	---	---	---	---	---	---	---	---	---	---	---

(후창-소미)

-	-	-	-	-	-	지	장	아	지	장	아
---	---	---	---	---	---	---	---	---	---	---	---

(선창-심방)

지	장	에	본	이	여	-	-	-	-	-	-
---	---	---	---	---	---	---	---	---	---	---	---

(후창-소미)

-	-	-	-	-	-	지	장	에	본	이	여
---	---	---	---	---	---	---	---	---	---	---	---

〈표-2〉를 보면 3소박4박자(3+3+3+3, ↓ ↓ ↓ ↓)의 리듬에 맞춰 선후창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쓰이는 장단 또한 삼석연물과 말미장귀에서 흔히 나타나는 악구의 변화와 박자 가감이 전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2〉을 보면 노래를 음영(吟詠)하는 방식이 같은 가사를 2회 반복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는 주창자인 심방과 반주와 부창을 겸한 소미들의 주고받음이다. 이러한 가창방식은 대개의 민요에서도 여러 형식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 (가) 반복창- 주창자의 노래를 부창자가 그대로 따라 부르거나 후렴을 반복하는 것
- (나) 교환창- 주창자와 부창자의 경계 없이 복수의 사람들이 대화하듯 노래를 주고받는 것
- (다) 선후창- 주창자와 부창자의 경계가 있되 부창자가 선창을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멜로디를 일정 정도 다르게 부르는 것

지장본풀이는 위의 세 가지 가창방식 중 선후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소미들이 심방의 노래를 반복적으로 따라하되 한 옥타브를 올리거나 내리는 멜로디의 변화, 경우에 따라 오히려 소미가 주도하고 심방이 따라 부르는 사례, 심방이 음영하는 가사와 소미가 음영하는 가사의 부분적인 불일치 등을 놓고 볼 때 (가)의 반복창에 가까운 (다) 선후창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것은 반복창으로 진행되는 영감본풀이의 서우제소리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표-3〉 서우제소리 가창방식

선창(심방)	천	금	산	-	도	-	요	왕	이	논	다	-
선창(심방)	적	금	산	-	도	-	요	왕	이	논	다	-
후창(소미)	아	하	-	아	-	아	아	-	하	야	앙	-
후창(소미)	어	-	허	-	양	-	어	허	어	요	-	-

한편 정격을 갖춘 또 다른 본풀이인 균웅본풀이는 심방이 혼자서 부르는 독창으로 진행돼 지장본풀이나 영감본풀이와 다른 방식을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 본풀이는 정격을 갖췄다는 양식적 특성 속에서도 제각각의 가창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요를 비롯한 우리나라 성악곡의 가창방식 중 선후창은 다른 방식에 비해 그 빈도가 매우 낮는데 지장본풀이는 어떤 이유로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확한 기원을 찾

는 길은 매우 어렵지만 심방집단의 전승관습을 통해 기능적 특성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사회의 중심적 집단인 심방들은 굿에 수반되는 연행기능을 별도로 교육하지 않고 실제 굿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제비(허드렛일을 하는 사람), 금제비(악사), 소미(소무), 심방의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제비에서 금제비를 거쳐 굿 한 석(蓆)을 소화해야 하는 소미가 되면 가장 먼저 맡는 소임이 통상 지장본풀이를 부르는 것이다. 때문에 금제비들이 반주를 하면서 심방이 부르는 지장본풀이를 따라 부르며 학습을 현장에서 병행하던 관행이 굳어져서 오늘날 지장본풀이의 연행방식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해서 지장본풀이를 능숙하게 부를 정도가 되면 그보다 큰 제차인 ‘석살림굿’을 맡는 것이 심방집단의 뿌리 깊은 관행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연행방식의 특징은 지장본풀이에 나타나는 장단의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소박 4박자의 정격을 유지하는 지장본풀이는 금속악기인 대양과 설췌를 제외한 울북, 장귀의 반주에 맞춰 연행된다. 이때 장귀의 경우는 대체로 단일한 장단을 반복적으로 연주하지만 울북의 경우는 금제비의 기량에 따라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다.

〈표-4〉 지장본풀이 울북 장단 (♩=70~80)

노래	지	장	아	지	장	아	(지	장	아	지	장	아)
기본장단	구		당	굿	다	궁	당	굿	당	굿	따	구구
변주1	구		다	굿	다	구	당	굿	다	굿	따	구구
변주2	구			구			구		구	굿	따	구구
변주3	구	딱		구	딱		굿		따	굿	따	구구

<표-4>의 예에서 보이듯이 율북의 변주는 단순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음악적 장치로 순서를 바꿔가며 연주돼 고도의 음악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정격의 틀 속에서 나타나는 율북의 다채로운 파격, 그리고 여러 옥타브를 넘나드는 선후창의 절묘한 조화는 자칫 가라앉기 쉬운 굿판의 분위기를 신명을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정확한 규칙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연행되는 것을 보면 지장본풀이는 다른 본풀이들과 달리 비교적 후대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개의 무속음악들이 박자의 가감이나 악구변화, 2소박과 3소박이 동시에 쓰이는 혼소박의 리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무속굿이 아닌 풍물굿에서도 당산굿, 지신밟이 등의 연희성보다는 의례성이 강한 제차에서는 자유리듬과 혼소박의 장단을 주로 사용한다. 이처럼 자유리듬과 혼소박의 장단들은 대부분 고형의 장단에 속하며 정연한 규칙을 가진 장단들은 19~20세기를 거치며 만들어졌다. 이를 근거로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을 바라볼 때 다른 본풀이의 가창방식보다 후대의 산물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더욱이 지장본풀이와 서사구조가 비슷한 동해안 무속의 중타령이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서대석의 견해와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물론 지금의 양식으로 고착되기 이전의 방식은 다른 본풀이의 가창방식과 유사할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그야말로 서사민요로 전승되던 것이 굿으로 편입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장본풀이의 연행방식과 음악적 구조가 지닌 특징은 여느 본풀이들과는 다른 변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본풀이 연구 풍토가 지닌 서사구조와 신화학적 의미해석에 치중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음악과 연행이라는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굿 전체의

유기성을 파악하는 길로 나아가는데에 요긴한 실마리가 된다고 본다.

V. 논의의 종합

지금까지 지장본풀이에 나타나는 화소와 신화의 배경적 특성, 그리고 연행방식의 특이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논의를 진행하며 비록 확연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지장본풀이에 나타난 ‘지장’과 ‘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파악하게 된 사실은 지장본풀이의 발생 시점 또는 후대적 변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결론에 대신해 이 세 가지 문제를 종합하기로 한다.

우선 지장이라는 단어가 불교의 지장보살에서 유래되었으므로 불교와의 습합을 거친 것이라는 단순한 결론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지장이라는 명칭보다 지장아기씨의 행적에서 불교적 내용을 끌어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테면 본풀이의 후반부에 대사(大師)를 만나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는 장면이나 이후 승려의 행색을 갖추고 탁발을 다니는 행적에서 불교적 특징을 찾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이용옥 본(本)에서 지장이 서천꽃밭의 통부체로 환생하는 대목 또한 불교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현용준의 경우처럼 지장과 지장보살신앙은 어떤 관련성도 지니지 않는다는 말은 명칭만을 놓고 볼 때 가능하다. 본풀이 후반부에 나타난 불교적 특징들과 연결 지을 때라야 불교와의 습합을 논의할 수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새를 어떻게 해석할 하는 문제다. 이것은 지장본풀이의 형성과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경본풀이의 서수왕 따님 애기의 사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김윤수 심방의 말처럼 분명히 구분되는 두 가지의 새가 어떻게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는 두 본풀이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와도 잇닿아 있다. 서대석의 동해안 무가 ‘신중타령’에 대한 해석에 동의한다면 일찍부터 전승되는 세경본풀이에 갈라져 나온 새풀이가 먼저이고 지장본풀이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면서 서수왕 따님애기의 변신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혹 지장본풀이가 이른 시기부터 전승되오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용옥 본(本)처럼 새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모습으로 환생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정리하면 비련의 여인 지장이 새남굿을 마련하고 사후에 부처로 환생했다는 고행의 본풀이가 근대적 변화를 거치며 새풀이에 나타는 화소를 수용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여기서 근대적 변화란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나타났던 민중문화의 대대적인 변화를 말한다. 물론 다른 지방과는 산업적 기반과 풍토 조건이 달라 제주의 그 시기도 문화적 격변기였나 하는 데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 변화된 민중문화가 제주에도 유입되었다고 보면 지장본풀이는 그 원형이 지녔던 내용과 형식에 큰 변화를 맞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지장본풀이의 연행방식에서 드러나는 근대적 특징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새와 관련한 문제는 새의 성격까지 이어진다. 앞서 이수자, 현용준, 김현선의 견해를 제시하며 그 중 김현선의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그보다는 연행의 주체인 심방들의 견해가 매우 중

요하다. 여기서 다시 이용옥 본(本)이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대개의 심방들은 지장이 새로 환생했다고 하지만 이용옥만은 ‘통부체’, 즉 부처가 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이용옥 심방(女巫, 1955年生)의 해석을 보면 새와 지장아가씨의와의 관계, 새의 성격이 드러난다.

지장아가씨는 한 맺힌 인생을 살았으며 말년에 승려가 되어 선업(善業)과 적덕(積德)을 쌓아 서천꽃밭의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생전에 한이 맺힌 채로 죽거나 악업을 일삼았다면 새로 환생했을 것이지만 선업을 쌓았으므로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부처로 환생해 좌정한 지장아가씨 근처에 부정한 새들이 범접하므로 그 새를 달래고 내쫓는 것이다.²⁵⁾

이용옥의 견해는 지장본풀이와 새풀이에 나타나는 새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있어서 높은 논리성을 갖추고 있다. 드문 사례를 일반화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새의 정체와 성격에 대해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불교와의 관련성, 새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자연스레 이 글의 마지막 논의인 발생시점과 후대적 변이로 이어진다. 다른 본풀이의 가창 방식, 연행방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규칙적인 악구의 반복, 창자와 반주자를 구분하고 서로 마주 보며 연행하는 모습 등은 마치 판소리의 연행을 보는 듯하다. 판소리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나타난 근대적 산물이라고 할 때 지장본풀이는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며, 전국적으로 광포하는 유사한 무가와 같은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지금까지의 논의를 짧게 종합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지장본풀이는 “지장아가씨의 출생과 성장→결혼과 시집살이→예언에

25) 이용옥 심방 전화인터뷰 요약. 2009. 6. 24.

따른 일과 곳→사후 부처로의 환생”이라는 고행의 본풀이가 근대적 변이를 거치며 새풀이의 변신화소를 끌어들이어 새를 달래는 후반부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례의 전후과정에서 부정을 소멸하는 제차로 성격이 굳어졌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정식 外,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400~405쪽.
- 김영돈·현용준,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3호, 1965, 577~586쪽.
- 김현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연구」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105~117쪽.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 1998, 63~308쪽.
- _____, 『제주도 큰굿자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1994, 641~645쪽.
- 신연우, 「서울 굿의 타령·만수받이·노랫가락의 관계」, 『한국무속학』 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272쪽.
- 이수자,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祭儀的 기능과 意義」,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소, 1989, 13~14쪽.
- 이영금, 「전북지역 ‘오구 씨꺼꿨’의 공연방식」, 『한국무속학』 16집, 한국무속학회, 2008, 302쪽.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64~166쪽.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8, 216~227쪽.
- 좌혜경, 『e-book 민요시학연구』, 한국문화도서관, 2007, 243~244.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61~165쪽.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39~295쪽.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04~109쪽.
- 홍태한, 「황해도굿의 무가」, 『한국무속학』 16집, 한국무속학회, 2008, 15쪽.

Abstract

The study on the riddle and Performing form of <Jijangbonpuri>

- In the focus on the meaning of Jijang and the bird,
the character of Performing form -

Han, Jin-Oh*

<Jijangbonpuri> which has a tragic living story of a woman, Jijang, is one of Shaman Songs singing an account of one's life. <Jijangbonpuri> is frequently sung in Siwangmaji leading death ancestor to the Heavenly way. JejudoGut is different to any Bonpuri, which a shaman originally performs in singing and a talk applying freely rhythm and melody, and shows a singing pattern in which bandsmen play regularly and repeatedly a Shaman's song to itself. In view of this pattern, <Jijangbonpuri> is so similar to the other local Mansebaji, Barajichang that they seem to be effected in each other.

The most importantly interested part of <Jijangbonpuri> is that Jijang has given another birth as a bird after she is dead. The bird is regarded as a uncleanly thing in JejudoGut so that it was expelled in Siwangmaji. In this article, there are two questions, "whether the uncleanly bird is truly Jijang" and "whether the uncleanly thing is absolutely expelled". The recent pre-studies explain that the bird is Jijang's avatar and understand it's expelled as a uncleanly thing. However, this article based on two new extracted materials in 2008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Jijang and the bird in a new way. The

*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new materials explain that Jijang, after death, isn't an incarnation of a bird but a stone of (image of) Buddha sitting in Seo-chon flower garden. The original meaning of <Jijangbonpuri>, looking at it before and behind, is to expel the bird doing harm toward the Buddha, Jijang's avatar.

This article based on the recent extracted materials doesn't only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Jijang and the bird in a new way but also researches in regarding the character of <Jijangbonpuri>'s Performing form as a relatively product of the future generation how to turn into the present <Jijangbonpuri> to itself through what channel, comparing the other local similar instances in letter and in spirit.

Key Words

A Performing form, A singing form, Bonpuri, Jijangbonpuri, Myth, Rite, Saepuri, Sekyungbonpuri, Siwangmaji

교신 : 한진오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E-mail : gutdoly@hanmail.net 전화 : 010-6692-6661)

논문투고일 2009. 07. 15.

심사완료일 2009. 08. 04.

계재확정일 2009. 08. 11.